

PROGRAM

R. Schumann (1810-1856)
Kreisleriana, Op. 16

1. Äußerst bewegt
2. Sehr innig und nicht zu rasch
3. Sehr aufgeregt
4. Sehr langsam
5. Sehr lebhaft
6. Sehr langsam
7. Sehr rasch
8. Schnell und spielend

Intermission

M. Mussorgsky (1831-1889)
Pictures at an Exhibition

- Promenade
1. Gnomus
- Promenade
2. Il Vecchio Castello
- Promenade
3. Tuileries
 4. Bydlo
- Promenade
5. Ballet of the Unhatched Chicks
 6. Samuel Goldenberg and Schmuyle
- Promenade
7. The Marketplace at Limoges
 8. Catacombae
- Cum mortuis in lingua mortua
9. Baba Yaga (The Hut on Fowl's Legs)
 10. The Great Gate of Kiev

Piano Recital Park Jung Hee



Piano Recital Park Jung Hee

박정희 피아노 리사이틀

R. Schumann Kreisleriana, Op. 16
M. Mussorgsky Pictures at an Exhibition

그 겨울의 회상

2014. 9. 23 화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 아트뱅크코리아 051.442.1941

후원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뉴잉글랜드 음악원, 보스턴대학교 음악대학 동문회

민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특별후원 | M-Dreamers 입장료 | 전석 2만원 (학생 50% 할인)

※ 본 공연은 201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의 사업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Photograph by 김문준

그 계절의 희망

Pianist 박정희

건강한 탄력의 소리를 바탕으로 음악의 내음에 민감한 후각과 음악의 조합을 위한 음의 맛을 가름하는 음악적 미각, 정돈된 음악의 완성을 위해 새로운 인식으로 얻어지는 표정과 표현에 순발력의 시각을 지닌 연주자

“격렬한 음악에서도, 서정적인 음악에서도 우리내 삶에 익숙한 가까운 음악으로 이끌어가는 친근한 음악미를 품은 연주자,” “진지하면서도 풍부한 기질을 토대로 음악을 말하는 믿음직스러운 연주자” 등 음악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을 지니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정희는 선화예술학교, 선화예고를 실기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후 미국 보스턴의 New England Conservatory of Music에서 석사학위 (MM)와 Graduate Diploma를 실기와 학과 우등으로 졸업하고 Longy School of Music에서 Artist Diploma를, Boston University에서 전액 장학생으로서 우수한 성적으로 박사학위 (DMA)를 취득하였다.

일찍이 두각을 나타내며 부산MBC음악콩쿨 최연소 1위, 한국쇼팽피아노콩쿨 1위, 동아일보 음악콩쿨 2위, 중앙일보, 세계일보, KBS서울신인음악콩쿨 입상 등 국내 최고의 콩쿨을 석권한 그는 미국 Anne and Aaron Richmond Competition 1위와 Honors Competition 우승을 비롯하여 Bradshaw and Buono 콩쿨, 이태리 Citta di Cantu 콩쿨,

Piano Recital Park Jung Hee

Viotti-Valsesia 콩쿨, IBLA 콩쿨 등 다수의 국제 콩쿨 입상 및 특별상을 수상, 그외 미국 Frinna Awerbuch 콩쿨, Concertartistguild 콩쿨, Atlanta 콩쿨, 이태리 Pozzoli 국제 콩쿨 등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서울대 음대 재학시절故 오정주 교수 장학금,故 현재명 교수 장학금, 미국 유학시절에는 론지 장학금, 보스턴 대학교 리치몬드 장학금 등을 받았다.

다수의 젊은이의 음악제, 영콘서트, 한국쇼팽협회 정기연주회, 피아니스트 우수신인 데뷔 연주회, 서울대 춘계음악회, 예술의전당 유망신예 초청독주회, 영산그레이스홀 금요초청 음악회, 영산아트홀 기획 초청 스프링콘서트, 음악예술학회 정기연주회, 미국 브랜디와인 국제음악제, 오레곤 바흐 음악제, NEC 슈만 음악제, 뉴잉글랜드 서울대 동문 자선음악회, 이태리 메라노페스트 국제음악제, 밀라노에서 열린 쇼팽 서거 150주년 기념음악회 등에 초청 및 성공적인 연주 무대들을 가졌으며, KBS 교향악단, 대구시향, 광주시향, 서울 아카데미 심포니 오케스트라, 서울대 동문 오케스트라, 롱아일랜드 유스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예술의전당, 금호아트홀, 세종문화회관, KBS홀, 영산아트홀, 호암아트홀, 문예회관 대극장, 부산시민회관, 부산금정문화회관, 경기도 문화의전당, 미국 뉴욕의 카네기 Weill Recital Hall, 링컨센터 Alice Tully Hall, 보스턴의 Tsai Performance Center, Slosberg Music Center, NEC's Jordan Hall, Williams Hall, Edward Pickman Hall, BU Concert Hall, Isabella Stewart Gardner Museum, Druker Auditorium, Weston Public Library, 이태리 Teatro Puccini, Auditorium di Milano 등에서 열린 다수의 독주회와 피아노 듀오 그리고 실내악 연주회 등 폭넓고 다채로운 연주활동을 통해 많은 호평을 받았고, 끊임없는 음악에의 도전과 탐구를 지향해오고 있다.

한국, 미국, 유럽 등지에서 연주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정희는 2012년 금호아트홀에서의 독주회를 시작으로 매해 서울과 부산에서 독주회를 가지고 있다. 영산아트홀 초청 스프링콘서트와 음악예술학회가 주최하는 정기연주회에서 자매 피아니스트 박미정과 피아노 듀오 연주회를 하였으며, 정진우 교수 오마주 콘서트, 서울대동문 음악회, 채재일 클라리넷 연주회, 벨루스 파르티트과의 실내악 무대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그는 독주 및 실내악 등 다양한 연주 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연주활동 뿐 아니라 학술활동에도 정진하여 음악예술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음악과 예술> 2013-1호에 “연주자의 관점에서 본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 작품번호 12의 이해”란 주제의 학술논문을 게재하기도 하였으며, 현재 Sento Chamber Society 멤버이자 동아대학교 강의전담전임교수, 한양대학교에 출강하며 연주활동뿐만 아니라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P,R,O,G,R,A,M NOTE

R. Schumann Kreisleriana, Op. 16

슈만 - 크라이슬레리아나, Op. 16

슈만의 피아노 작품 중 최고 걸작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 이 곡은 총 8개의 긴 곡으로 묶여있으며 클라라에 대한 상념만큼이나 E.T.A 호프만의 소설에 나오는 가공의 지휘자 크라이슬러에 대한 추억으로 가득 차 있다. 이 곡의 흥미로운 점은 형식적 구성과 과정이 아니라 묘사된 분위기의 거대한 다양성에 있다. 격렬한 동경과 향기로운 미망의 교차로 크라이슬러의 세계이자 플로레스탄과 오이제비우스로 양분되는 슈만 자신의 정신세계가 8곡을 통해 나타나며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빛과 그림자, 비움과 일그러짐, 정신과 육체 등 상반된 삶의 요소를 자유자재로 변용하면서 융합해 나가는 은밀한 환상을 그린 작품이다. 어느 날 홀연히 정적을 감춘 소설 속의 크라이슬러처럼 피아니시모 속에 사라져 특별한 여운을 선사하는 이 곡은 '친구 쇼팽에게'라고 명시되어 헌정되었다.

M. Mussorgsky Pictures at an Exhibition

무소르그스키 - 전람회의 그림

이 모음곡은 무소르그스키의 절친한 친구로 유명한 화가이자 건축가였던 빅토르 하르트만의 비극적인 죽음이 동기가 되어 쓰였다. 1874년 하르트만 작품의 추모 전시회에서 무소르그스키는 벽에 걸린 수채화와 소묘 사이를 천천히 거닐다가 하르트만 그림에 나오는 정경들을 묘사하는 곡들을 쓸려는 착상을 하게 되어 짧은 피아노곡들로 작곡해 <전람회의 그림>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무소르그스키는 이 곡을 완성하여 친구인 소타스프에게 헌정했으나, 그의 생전에는 한 번도 연주되지 않았고 사후 6년 후에야 린스키-코르사코프의 도움으로 출판되었으며 50년 간 거의 잊혀 있었던 작품이다. 무소르그스키의 대표적인 기악작품인 이 곡은, 19세기 러시아가 낳은 가장 독창적인 작품으로 평가 받는다. 곡은 그림을 관례시킨 10곡의 소품과 전주, 간주의 역할을 하는 프롤로그로 이루어져 있다. 훌륭한 배열도 그렇지만 무소르그스키의 독특하고 대단한 독창성이 전면에 흐르고 있으며, 음악적 신선미는 오늘날에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색채적인 뉘앙스가 풍부하기도해서 많은 작곡가들에 의해 관현악곡으로 편곡되었으며 그 중 라벨에 의해 편곡된 것이 가장 유명하다. <전람회의 그림>은 무소르그스키의 유일한 피아노를 위한 대곡으로 그의 전형이 그대로 나타나 있으며 당시 지배적인 리스트나 쇼팽의 피아노음악 양식에 비해 독창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